

“술도 하나의 문화... 활용법 고민해야”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허시명 막걸리학교장

“과거 문사철(문학·역사·철학) 분야 위인들은 술을 한 잔 걸치고 생각을 가다듬고 뜻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술에 기여한 바는 없어요.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술에 얽인 일화는 ‘대하소설’인데, 술 자체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없었던 겁니다.”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 나선 허시명 막걸리학교 교장은 광주·전남지역 리더들에게 “지역을 위해 어떤 술을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해보라”고 권했다.

그는 “광주에 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광주만의 술이 없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

“훌륭한 발효음식을 가진 고장에서 지역만의 막걸리, 술이 없어요. 술과 어울릴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정작 화통정점을 찍어줄 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전라도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흥에도 막걸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묵은지의 신맛과 흥어의 알싸함, 막걸리 특유의 ‘딤땀함’과 ‘묵직함’이 절묘하게 어울린다는 것이다. 막걸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는 묵은지로,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순환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술이 제일 맛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시는 술”이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밥은 누구와도 먹을 수 있지만, 술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술 한 잔에 담긴 ‘관계’의 의미를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허시명 막걸리학교 교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술 한잔 제안은 대화하자는 것 리더의 술자리 건배사는

오케스트라 지휘봉 같은 존재

술을 마셔왔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또는 혼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술 한잔을 권하는 건 ‘대화를 하자’는 의미를 담은 신호체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술집을 찾는 것을 넘어 ‘나만의 술’을 나누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듯 술도 하나의 음식으로서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배사’에 대한 철학도 빼놓지 않았다. ‘리더의 술자리 건배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봉’ 같은 존재라고 했다. 모임이나 조직 대표자의 건배사와 자신만의 건배사는 하나의 ‘브랜드’와 같다는 것이다.

허 교장은 “지역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술”이라면서 “술에 대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김치나 된장처럼 주막마다, 집집마다 술을 담갔고, 그 고장에서 자란 농산물(쌀과 복분자 등 특산물)과 물, 바람 속 미생물까지 술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주로 어머니들이 김치를 담가오. 그래도 마트에서 파는 김치보다 훨씬 맛있죠. 술도 같습니다. 양조장이나 주류회사에서 만드는 것보다 집에서 빚는 게 훨씬 맛있고 몸에 좋아요.”

그는 막걸리와 맥주를 비교했다. 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며, 쌀로 만든 술이 막걸리다. 막걸리는 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맥주 스타일의 저도주다. 쌀은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고, 보리는 찬 냉기를 머금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당신은 쌀밥을 맛보셨습니까? 아니면 보리밥을 맛보셨습니까?”

/박기용기자 pboxer@

“전문대학, 평생교육 중심大 거듭나야”

한국지방신문협과 MOU...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앞으로 전문대학은 평생교육 중심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4일 매일신문사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업무협력 조인식에서 한국 전문대학의 생존은 ‘커뮤니티 칼리지’ 기능을 하는 ‘평생교육’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밀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위한 성인 인재교육 시급 융접·금형 등 3D 직종 인력 전문대학 활용방안 찾아야

이 회장은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60대~80대 노인들을 위한 성인인재교육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선 “각 지역 전문대학의 교수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융접, 금형 등 3D 직종에 대한 산업인력 확보문제도 전문대학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 동남아 지역 우수한 다문화 산업 전문가를 전문대학에서 재교육시키고 이들이 국내서 5년간 근무시 영주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 비자 쿼터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대학 교육목표는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교육, 산업과 사회에 맞춤형 교육, 학벌보다 능력 중심 사회 등 3가지로 “교육부가 추진중인 자유학기제도 이러한 목표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가수 싸이도 학창시절엔 열등생으로 취급받아 ‘너 언제 인간탈레’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죠. 하지만 자신의 끼를 살린 결과 월드스타가 되지 않았나요.”

이 회장은 무엇보다 전문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는 벌써 능력 중심 사회로 변했는데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인식은 아직 학벌 사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전문대학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찾는 곳’이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문제가아로 취업반등 학생이 게임과학교에 입학, 훌륭한 프로그래머나 유능한 게임개발자로 성장하듯, 국영수를 못한다고 열등생으로 취급하기보다 다른 재능을 찾아 재능 우등생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신문=김태형 기자 thkim21@msnet.

한신협-전문대협 미디어 콘텐츠 교류 지역 밀착 서비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군장대학교총장)가 상생 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매일신문 3층 회의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MOU) 조인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전문대학과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 교류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인 대학 홍보 및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지역밀착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여창환 한국지방신문협회장,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김진순 한국전문대학 대구경북지역

협의회 총장(수성대학교 총장), 김상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홍보부장,이영우 한국전문대학교 홍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는 전국 173개 전문대학교가 가입돼 있으며,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를 비롯해, 매일신문,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인일보 등 전국 8개 유력 지방 언론사로 구성돼 있다. /매일신문=김태형 기자 thkim21@msnet.

챔피언스필드에 선 ‘청산도 슈바이처’

이강안 푸른피웅양의원장 시구

‘청산도 슈바이처’의 특별한 야구장 나들이였다.

지난 1일 KIA와 두산의 경기가 열린 챔피언스필드에 ‘청산도’에 사는 노(老) 의사가 걸음을 했다. 야구를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KIA 타이거즈의 열혈팬 이강안 원장(81·원도 청산 푸른피웅양의원)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 원장은 이날 글러브를 끼고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챔피언스 그라운드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13년 불의의 낙상사고로 차영하 코치가 병상에 있다는 광주일보 기사를 접한 뒤, 광주일보를 통해 차영하 코치 돕기 선금을 전달했다. 지난 겨울까지 3년째 이어진 정성에 KIA 주장 이범호가 직접 나서 이 원장의 시구를 추진했다.



삶의 일부인 야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는 청산도 작은 섬을 찾아다니며 인술을 베풀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청산도 슈바이처’로 통한다. 지난달 제44회 보건의 날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

기도했다. 이 원장은 “인생의 성공은 나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베풀이 큰 행복으로 돌아와 시구를 한 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더 베풀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석산고 ‘과학발명품경진’ 우수학교상

광주석산고등학교(교장 김운탁) 학생들이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 주관한 ‘제30회 광주광역시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입상, 우수학교상을 수상했다.

김석영(2학년·사진)군은 ‘관장 넘나 편한 것’이란 주제로 금상을, 장본이(2학년·이상지도교사 권남호)군은 ‘간식식 듀얼 칠판지우개’를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태권(1학년·지도교사 윤재관)군은 ‘책은 품은 코너’로 동상을 받았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고취시키고,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생활과학 I, 생활과학 II, 학습용품, 과학완구, 자원재활용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매년 열리고 있다.

석산고는 지난 2014년에 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도 황영석·염은섭(이상 3학년)군 등 2명이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임내현 의원 주도 ‘영·호남 교류 대학생의 밤’



대표적인 영·호남교류 사업 중 하나인 ‘영·호남 교류 대학생 환영의 밤’ 행사가 3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당 임내현(광주 북구) 의원이 지난 2003년 대구 고등검찰청장 재직 당시 전남대, 경북대와 민족통일협의회에 ‘영·호남 교류 대학생 환영의 밤’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교류한 학생 숫자는 약 4000여명 정도다. 이날 행사는 임 의원을 비롯한 윤장현 광주시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 이형만 민족통일광주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교류학생 대표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손재열·고광미씨 아들 영완군 박성호(남도일보 사장)·고광심씨 차녀 은지양=7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워딩룸 2층 열무채움.

▲윤용운(유승산 대표)·박정은씨 장남 성재군 강재구(대진상공사 대표)·신경순씨 장녀 소연양=7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래울.

▲양원호(순천대 교수)·안순옥씨 장남 희도군 김영두·강만익씨 장녀 주영양=14일(토)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예식을, 당일 오전 7시 순천대 정문 전세버스 출발, 오전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 경유. 문의 010 2994 5045

▲이정·이숙희씨 차남 동욱군 이용기(전 합평군 주민생활지원과장)·함선미씨 장녀 보나양=14일(토)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1동 성당.

향우회

▲나광희(회장 기용섭) 월례회=7일(토) 낮 12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싱싱한민어 식당 062-227-2179.

종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재광 이사회 모임=6일(금)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중앙로 예술의 거리 건너편 하동정씨 빌딩 길 옆 중앙예식장. 문의 010-6455-6296.

▲번남박씨 대중중 전남지회 정기총회=7일(토) 오전11시 나주시 다시면 구진포로 58번길 신홍양아시당. 문의 010-4114-3989.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창열)

월례회=5일(목)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금강산식당 062-224-0808.

부음

▲임귀식씨 별세 김윤석(광주 하계U대회조직위 사무총장·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씨 병부상=발인 5일(목) 목포시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1호실 061-244-4400.

▲김명심씨 별세 유정근·성근씨 모친상=발인 6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형석 님(남) 父/母 : 김진환/송효녀 兄/弟 : 김원지/은민 未亡人 : 강주리 발인 : 5월 5일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석진희 님(여/95세) 兄/弟 : 석근만, 근수, 경미 未亡人 : 이숙자 발인 : 5월 5일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김두레 님(여/86세) 子 : 조영규, 영수 女/婿 : 조유란/최효식 未亡人 : 이숙자 발인 : 5월 6일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애금씨 님(남/84세) 女/婿 : 배영란/김성오 未亡人 : 이숙자 발인 : 5월 5일 장지 : 삼성동국원 • 연락처 : 227-4385

孝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5일(음 3월 29일 丁亥)

子 48년생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 60년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72년생 김홍이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84년생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5, 81	午 42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54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해소되리라. 66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배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78년생 불가항력적이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행운의 숫자 : 11, 40
丑 49년생 잘못된 흐름이 보이니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61년생 절실할 필요가 했던 버를 취하는 기쁨이 보인다. 73년생 평면은 대동소이하나 깊은 뜻이 다르다. 85년생 무리한다 면 무시당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47	未 43년생 추진할 수 있는 작기에 와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말라. 55년생 지속 가능하기는 하니 구대의연할 뿐이다. 67년생 기본 소식을 듣고 함차게 뛰어가라. 79년생 주관에 치우친다면 손실이 대단히 크다. 행운의 숫자 : 64, 30
寅 50년생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62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해법이 도출되는 판세이다. 74년생 패해가 보이니 자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6년생 끝까지 조마조마할 것 이나라. 행운의 숫자 : 58, 52	申 44년생 진행이 원활해지고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 56년생 그림의 미학을 인식해 보는 것도 괜찮다. 68년생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면 시간까지 소비하는 셈이다. 80년생 시작이 반이니 일단 착수하고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31, 04
卯 51년생 연연중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라. 63년생 집착하거나 감정적이라면 제3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객관적이다. 75년생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87년생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겠다. 행운의 숫자 : 71, 68	酉 45년생 활동하기에 매우 수월한 상태이다. 57년생 일단, 초쳐해 나가면서 체계를 잡아도 된다. 69년생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81년생 감수하고 있으려면 머지않아 반전되겠다. 행운의 숫자 : 74, 32
辰 40년생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 52년생 궤를 달리하는 이가 보이니 예의주의하라. 64년생 가볍게 여겨 왔던 것이 크게 비화될 수도 있다. 76년생 틈새가 보이기 시작한다. 88년생 탄식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60, 57	戌 46년생 머지않아 곧 끝날이 날 것이니 차분히 기다리자. 58년생 굳이 남의 이목을 의식할 필요는 없느니라. 70년생 과감하게 버려야 일목유연하게 정리된다. 82년생 궁극의 상상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23, 64
巳 41년생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 53년생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65년생 말하지 않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77년생 지금 손대지 않으면 완전히 굳어지게 되어 있다. 89년생 크게 보이라. 행운의 숫자 : 72, 69	亥 47년생 급격히 멀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59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물거품이 되고야 말 것이다. 71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될 가능성은 참으로 높다. 행운의 숫자 : 46, 6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